

# 주거급여 '사전신청' 하세요

### 전주시,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주민센터서 사전신청 접수

### 10월부터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3000원)인 임차 또는 자가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부모와 자녀가 있더라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부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

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도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면 임차(전·월세)가구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는 주택수선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기간을 운영, 수급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주택조사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예정으

로 전주시에서는 약7,000세대가량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급여 사전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채준 시 주거복지과장은 "주거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동 자생단체 및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김인순 지구지킴이 회장 순수 만든 아동복지관

민간단체인 지구지킴이 김인순 회장(70)은 6일 덕진구청 생활복지과를 방문하여 저소득 아이들에게 전해 달라며 순수 만든 아동 의류 50점을 기탁했다.

김 씨는 다음세대인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원한 인견 자투리천으로 원피스, 한복, 치마 등 여름용 아동의류 50점을 제작하여 전달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지구지킴이 회원들과 심사일만 모은 50만원을 저출산 정책 후원금으로 전주시에 기탁, 저소득 다자녀가구 5세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나무심기에 동참하고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체 회원으로서 7년째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등 사회의 어려움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김 씨는 "환경과파나 저출산 현상은 내 자녀가 살아가야할 미래의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숨쉬며 뛰노는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어머니의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

## '다슬기 잡으려다...'

###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6일 오전 8시40분께 무주군 부남면 한 하천에서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5일 일행 5명과 해당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중 실종됐다.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이를 동안 수색 작업을 벌여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뉴시스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에서 전국 거리음악가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비빔문화공연이 펼쳐진다.

## 전주비빔밥축제, 버스킹과 함께 즐긴다

### 이달 24일까지 축제에 참여할 버스커 전국서 모집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에서 전국 거리음악가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비빔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선거현)는 오는 10월 전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2018 전주비빔밥축제'의 공연프로그램인 '버스킹으로 물들다' 행사에 참가할 버스커들을 오는 24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을 주제로 한 글로벌 음식문화축제로, 12회째를 맞아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주한옥마을

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전통의 맛과 멋, 흥이 한 데 어우러진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지난해 글로벌 미식축제로 걸맞은 수준 높은 버스킹 공연으로 호평을 받은 비빔문화공연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는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전주한옥마을 야외공연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쳐 비빔밥축제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음식 퍼포먼스와 함께 다양한 버스킹을 통한 또다른 즐거움을 선보일 계획이다.

버스킹 공연 모집 분야는 △악기 연주 △노래 △거리미술품 등 거리 공연이 가능한 장르이며, 공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주비빔밥축제 홈페이지(www.bibimbapfest.com)에서 내려 받은 공연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bibimbapfest@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는 참가 신청자들에게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063-231-8969)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사회통합형 공간의 이름 지어주세요'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명칭 선정키로

전주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형 공간인 어울림센터의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짓기로 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과거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웨딩홀로 사용되었던 공간에 조성되는 가정 어울림센터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마련되는 공간으로, 이곳에는 △빛과 소리,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영화관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플랫폼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체력단련실 △장애체험관 △작은모임방 △유니버설디자인 화장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어울림센터가 조성되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웨딩홀은 문을 닫은 후 수년간 시민들과 접촉이 단절되었던 곳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재탄생하게 됐다.

명칭공모 연령과 성별,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1인 1작품에 한해 공모가

가능하다. 접수는 이메일(sky001@kr-ec.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응모작에 대해 1차 예비심사와 직원 선호도조사, 2차 심사위원회를 통해 명칭을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명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 특성을 함축했는지 여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친근함 △아울림센터의 역할 및 운영 취지에 맞게 적절한지 여부 등이다.

수상작은 오는 9월 중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발표되며, 최종 선정작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우리사회 이면에는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소하는 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군산해경, 미지정 해수욕장 물놀이 주의 당부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지정되지 않은 해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옥도면 신시도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해변에서 밀려나기면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고 밝혔다.

신시도 해변은 몽돌해수욕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 군산시 해수욕장 고시에는 지정이 안 된 상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해수욕객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요원 역시 지정된 해수욕장에는 상주 근무를 하고 있지만 미

지정된 곳은 구조인력이 없어 군산해경과 지치단체는 피서철 해수욕장 물놀이를 권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미지정 해수욕장에서의 사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구조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조 비전문가가 무리하게 바다에 뛰어들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10대에 음란행위 시킨 대학생 집행유예

### "나체사진 뿌린다" 협박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0대)양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나체 사진을 받는

등 같은 달 22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 등을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발을 들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성관계를 비롯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진 유포를 빌미로 또다시 B양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